“대숲처럼, 초록처럼”…담양 대나무축제 준비 ‘착착’

내달 11-15일 죽녹원 일원서…전시·공연 등 준비 ‘박차’
축제 현장 곳곳 야간 조명 설치 등 경관·포토존 조성 한창

담양군이 제23회 담양 대나무축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5월11-15일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처럼, 초록처럼 대나무천국 여기는 담양!’을 주제로 제23회 담양 대나무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담양군은 대나무의 싱그러움과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구현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 관련 전시·공연·체험, 경관·포토존 등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죽녹원 정문 매표소-아트센터-전망대-향교다리-관광정보센터-도립대 정문-종합체육관 뒷길 구간 1천440m에 낭만 가득한 5월의 밤풍경으로 연출할 대나무 소망등 3천개를 설치했다.

또 관방천과 구름다리 1천m에는 한지등 1천200개, 죽녹원 전망대-아트센터 260m는 줄전구, 아트센터-향교2구가는 길 60m는 반딧불등과 트리등을 달아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인 대숲과 강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야외무대에 서치라이트를 장착하고, 매표소-봉황루 입구-죽마고우길 180m 구간은 소망등이, 운수대통길-아트센터 130m 구간은 알전구, 아트센터-향교리 공예센터 뒤 60m 구간은 반딧불 전구가 은은한 빛을 발산하게 했다.

특히 한층 다이내믹한 축제를 위해 봉황루를 중심으로 주변 대나무숲에 담양종합체육관 방향으로 강렬한 빛을 내뿜는 LED 무빙라이트 20개를 설치했다. 관람객들이 더욱 풍성한 야경에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죽녹원 입구에 달모양의 조형물, 죽녹원 안에는 동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아이들과 친숙한 3m 이상의 거대한 유등 모양의 포토존도 마련했다.

담양군이 낭만 가득한 5월의 밤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대나무축제 현장 곳곳에 소망등, 반딧불등 등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대나무박물관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담양군 제공〉

시가문화촌의 고즈넉한 밤 분위기를 위해 예향정-추월당 700m 구간에 소망등과 서치라이트, 투광등, 램프 등을 장착했다. 담양종합체육관과 전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이뤄질 먹거리와 전시·공연·체험 부스를 설치하는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종합체육관과 전남도립대 일원에는 한우를 포함한 먹거리 30개, 청년창업 및 전시체험 47개, 농특산물 판매 6개, 행정 및 전시판매체험 45개, 디저트 전시판매 36개, 자매결연 4개 등 174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또 유명가수 공연, 고향사랑 담빛트롯 전국가요제, 전국 청소년 끼페스티벌, 죽녹원에서는 시니어 패션쇼, 대나무악기 공연, 버스킹, 대박 터뜨리기, 구·곡·순·담, 쏠로탈출 프로그램(심쿵in 담양), 사진전 등이 펼쳐질 주무대와 화장실과 부스 등 시설물 설치를 오는 5월8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담양군은 4월까지 부스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교육,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 중간보고 등을 거쳤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주력’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등 보건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보건교육·워크온·장수체조교실 등 ‘호응’

광양시가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건교육장,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워크온 걷기 챌린지, 장수체조교실(사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 보건교육장 운영, 건강백세 장수체조 사업,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지원, 금연 지원 사업, 취약지역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5-7세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건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교육은 편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과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올바른 구강 관리 및 칫솔질 교육, 기침예절, 손 씻는 방법 등을 동극, 구연동화 인형극 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된다.

아울러 일상 속 걷기를 장려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체조교실은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노년기 영양관리 교육,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광양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가정의 달 이벤트 ‘풍성’

내달부터 개장…무료 댄스 클래스·바비큐존·보물찾기 등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1일부터 새 시즌 운영 시작과 함께 다채로운 가정의 달 이벤트를 선보인다.

29일 여수 디오션에 따르면 온수로 운영되는 실내 워터파크 파도풀에서는 K-POP부터 줌바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쿠아댄스 클래스와 물놀이 위급상황 대처 방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사진〉

이는 워터파크 입장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워터파크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찾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는 디오션 워터파크 이용권과 숙박권 외 다양한 경품을 뽑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가 준비됐다.

인피니티풀과 실외 유아풀에는 사전 예약 후 가져오는 음식을 자유롭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바비큐존이 마련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물놀이 경험을 하고 싶은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5월4-5일은 물놀이 후 호텔 레스토랑에서 ‘더 테라스 바비큐 뷔페’도 즐길 수 있다.

이틀만 운영되는 뷔페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호텔 셰프가 준비하는 바비큐와 활어회를 포함한 40여 종의 메뉴와 하우스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이용은 워터파크 이용객·투숙객 뿐만 아니라 여수 지역민에게도 10% 우대 할인이 적용된다.

여수 디오션 관계자는 “슬라이드나 유수풀 외에도 즐겁고 유익한 무료 클래스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가족 단위 입장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지역 상생 현장 소통 행보

‘2024 순천상생토크’ 6월까지 총 15회 진행

순천시는 29일 “오는 5월3일부터 6월까지 ‘2024 순천상생토크’(사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이였다면, 올해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다.

우선 정책 수요 대상, 현안 관련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시정 소통을 진행한다. 원거리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순회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민선 8기 취임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설명 및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로 알맹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순천상생(相生)토크는 5월3일 남문터 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업 방안’에 대한 현장 대화를 시작으로 청년, 노인, 농민 등 계층과의 만남, 읍면지역 시민과의 대화 등 총 15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정기기자

더본코리아, 외식분야 청년 취·창업 돕는다

장성 특산물 활용 요리 제안·청년인력 양성 ‘맞손’

장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관계를 외식분야 청년 취·창업까지 확대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더본코리아와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 ‘청년 외식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는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더본코리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지부, 백련동 편백농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육군 상무대 장병 특식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청년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유통 활성화를, ㈜더본코리아는 장성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제안과 청년인력 양성을 맡는다.

지역 외식업체는 청년 식생활 상생 공동체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들은 청년 외식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운영 일정 변경

화순군은 29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의 운영상 공연 일정을 오는 5월1일부터 조정·변경한다”고 밝혔다.

평소 음악분수 공연은 주 6일(화-일) 1회, 주말·공휴일은 2회를 운영했으나 5월1일부터는 주 4일(수·금·토·일) 운영, 토요일만 2회 공연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잦은 공연에 따른 희소성 상실, 주민들의 여가 활동 시간·생활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공연 휴무일은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점검, 하천환경 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최적의 음악분수 공연에 기여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공연 횟수 감소로 주말·공휴일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반사효과를 창출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음악분수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올해 연출곡 추가 및 최첨단 영상시설 설치로, 운영 전부터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번 달에만 3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직무교육 이수율 등 모든 분야서 우수 평가

구례군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사례를 공유해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5개 기관(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구례군은 직무교육 이수율, 현장보고 장비 활용률, 업체 점검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 일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위해식품 및 이물신고 민원처리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14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